

## 지난 2년간의 학회지 “신경정신의학” 심사 평가보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간행위원회

김찬형 · 김세주 · 김도관 · 김성곤 · 박원명 · 송동호 · 박용천 · 이영문  
오강섭 · 정영철 · 이상열 · 김주한 · 이동영 · 이현정 · 함병주 · 김율리  
김문두 · 김정진 · 이강욱 · 천근아 · 김재진 · 홍진표 · 홍승철

### Two Years Reviewer Evaluation Reports of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Chan-Hyung Kim, MD, PhD, Se Joo Kim, MD, PhD, Do Kwan Kim, MD, PhD, Sung Gon Kim, MD, PhD,  
Won Myoung Bahk, MD, PhD, Dong Ho Song, MD, PhD, Yong Chon Park, MD, PhD, Young Moon Lee, MD, PhD,  
Kang Seob Oh, MD, PhD, Young Chul Chung, MD, PhD, Sang Yeol Lee, MD, PhD, Ju Han Kim, MD, PhD,  
Dong Young Lee, MD, PhD, Heon-Jeong Lee, MD, PhD, Byung Joo Ham, MD, PhD, Youl Ri Kim, MD, PhD,  
Moon-Doo Kim, MD, PhD, Jungjin Kim, MD, PhD, KangUk Lee, MD, PhD, Keun-Ah Cheon, MD, PhD,  
Jae Jin Kim, MD, PhD, Jin Pyo Hong, MD, PhD, Seung Chul Hong, MD, PhD

*Editorial Board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 서 론

신경정신의학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공식 학술지로서 1962년 4월 창간호를 발간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2000년도에는 KoreaMed에 등재되었으며 2004년도 학술진흥재단의 후보지 등재된 바 있다. 앞으로는 Index Medicus나 SCI 등재를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지난 2년 동안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노력에 힘입어 많은 논문들이 투고되어 심사를 거쳐 ‘신경정신의학’에 게재되었다. 특히 2005년 6월부터는 논문의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바뀌는 획기적인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간행위원회에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하며 지난 2년간의 학회지 ‘신경정신의학’의 투고 및 심사, 그리고 게재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현황과 문제점을 되돌아 봄으로써 보다 나은 학회지 ‘신경정신의학’의 성숙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 지난 2년간의 학회지 ‘신경정신의학’ 현황

2005년 6월 온라인투고 시스템으로 전환된 이래 2007

년 7월까지 총 238편의 논문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20편의 논문이 ‘신경정신의학’에 게재되었으며 42권 6호부터 44권 5호까지 전체 12권이 발간되었다. 투고된 238편 중 71편이 계재 거부되었고 15편은 저자들이 투고를 철회하였으며 32편은 현재 논문심사 중에 있다.

### 신경정신의학 투고 및 심사 통계

#### 신경정신의학 심사 평가 분석 (2005~2007)

각 Section별로 진행된 발표내용을 가능한 여과 없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Section 1. 기초, 생물정신의학 분야

증례보고 : 1, 유전연구 : 3, 생물 : 8, 기타 5

(1) 심사현황 : 계재 11, 투고철회 3, 계재거부 1, 심사 중 2

(2) 1차 심사결과 : 무수정 2, 조건부 10, 재투고 1, 투고철회 2

문제점 및 제안 – 투고된 1편의 논문에서 결과의 상

당부분이 다른 학회지에 이미 발표된 결과와 중복되어 사용한 예가 있었음. 저자들에게 미리 간행위원회에 고지하여 허락을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사용된 자료의 일

부를 이용한 논문이 이미 다른 곳에 게재되었음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게재를 허용하였으나 추후 저자들이 특고를 철회함.

**Table 1. 월별투고편수**

연 월	투고편수
2005년 6월	2
2005년 7월	11
2005년 8월	13
2005년 9월	10
2005년 10월	6
2005년 11월	6
2005년 12월	7
2006년 1월	10
2006년 2월	10
2006년 3월	9
2006년 4월	10
2006년 5월	9
2006년 6월	13
2006년 7월	13
2006년 8월	13
2006년 9월	8
2006년 10월	5
2006년 11월	6
2006년 12월	12
2007년 1월	7
2007년 2월	7
2007년 3월	9
2007년 4월	5
2007년 5월	20
2007년 6월	12
2007년 7월	5
총 투고 편수	238

**Table 2. 세부편집장별 논문**

세부편집장	관련분야	배정 논문	제재 논문	Reject 논문	저자투고철회	심사 중 논문
김용구	신경과학/생물정신의학	17	11	1	3	2
정영철	정신분열병	25	13	8	2	2
김재진	정신분열병	13	6	4	1	2
박원명	기분장애	31	14	12	0	5
김성곤	중독정신의학	18	10	5	1	2
오강섭	불안장애	17	12	4	1	0
송동호	소아/청소년	32	17	10	1	4
김도관	노인/기질성정신장애	19	6	9	3	1
박용천	정신치료	7	4	3	0	0
이영문	사회문화정신의학	16	12	1	3	0
홍진표	사회문화정신의학	7	2	2	0	3
김찬형	무인소/기타	18	8	3	0	7
이상열	정신신체장애/정신생리	6	3	2	0	1
홍승칠	수면의학	5	2	0	0	3
논문적합성판정 부적합판정 받은 논문		7		7		
총투고편수		238	120	71	15	32

## Section 2. 정신분열병 분야

### 정신분열병 분야 1

약물연구 3, 평가도구 2, 뇌영상 2, 사회 4, 정신병리 1, 기타 1

- (1) 심사현황 : 게재 6, 투고철회 1, 게재거부 4, 심사 중 2
- (2) 1차 심사결과 : 무수정 0, 조건부 7, 재투고 3, 게재거부 1, 투고철회 1, 심사 중 1

문제점 및 제안 – 학회지 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심사위원의 pool이 너무 제한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공의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온라인 시스템에 심사위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논문심사를 의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분열병 분야를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의 pool을 늘리는 것이 필요함.

### 정신분열병 분야 2

약물연구 3, 평가도구 4, 뇌영상 2, 사회 2, 정신병리 및 임상특성 10, 신경심리 3, 유전 1

- (1) 심사현황 : 게재 13, 투고철회 2, 게재거부 8, 심사 중 2
- (2) 1차 심사결과 : 무수정 1, 조건부 13, 재투고 6, 게재거부 1, 투고철회 2, 심사 중 2

문제점 및 제안 – 투고된 논문 중 1편이 중복게재된

**Table 3.** 심사결과 (게재거부율 : 25.6%)

심사결과	무수정계재	저자수정 후 계재(2차 심사)	심사위원확인(2차 심사)	Reject	투고 철회	부적합판정	심사 중	Total
1차	19	47	75	61	15	7	14	238
2차	무수정계재	저자수정 후 계재(3차 심사)	심사위원확인(3차 심사)	Reject	투고 철회	부적합판정	심사 중	Total
심사결과	83	13	8	2	0	0	16	122
3차	무수정계재	저자수정 후 계재(4차 심사)	심사위원확인(4차 심사)	Reject	투고 철회	부적합판정	심사 중	Total
심사결과	18	0	1	1	0	0	1	21

**Table 4.** 심사기간

회차	논문편수(편)	소요기간(일)	평균소요기간(일)
1차 심사	202	12,307	61
2차 심사	103	2,685	26
3차 심사	19	381	20

논문임이 밝혀져 저자가 투고를 철회하였음. 심사위원들이 논문 심사뿐만 아니라 논문의 중복계재 여부도 함께 체크하여야 함을 시사함. 논문심사위원들의 리스트를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 논문을 투고할 때 피하고 싶은 심사위원과 심사의뢰를 원하는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

### Section 3. 정신치료 분야

교육관련 4, 평가도구 2, 명상 1

(1) 심사현황 : 게재 4, 게재거부 3

(2) 1차 심사결과 : 무수정 0, 조건부 4, 재투고 3

**문제점 및 제안** – 심사위원의 최종 심사가 1~2개월 내로 처리되었음. 논문심사를 철저하게 하는 편이며 심사 결과도 저자들이 논문을 수정하거나 향후 연구를 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공하고 있음. 짧은 심사위원일수록 게재거부율이 높음.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심사위원들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보상해 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심사위원들이 논문을 심사에 참여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요구됨.

### Section 4. 기분장애 분야

병태생리 3, 약물관련 증례 2, 정신병리 및 임상특성 13, 뇌영상 2, 신경심리 4, 평가도구 5, 유전 2

(1) 심사현황 : 게재 14, 게재거부 12, 심사 중 5

(2) 1차 심사결과 : 무수정 0, 조건부 13, 재투고 11, 게재불가 2

영상 3, 유전 2

(1) 심사현황 : 게재 17, 게재거부 10, 투고철회 1, 심사 중 4

(2) 1차 심사결과 : 무수정 1, 조건부 16, 재투고 6, 게재불가 3, 투고철회 1

**문제점 및 제안** – 현재 온라인 시스템 상에 소아청소년 분야를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의 pool이 10명 정도에 불과하고 1년에 평균 5편 정도의 논문심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어 심사위원들에 부담이 되는 편임. 논문 심사위원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심사위원의 pool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투고된 논문 중 1편이 이중투고가 확인되어 저자들에게 알리고 투고를 철회시킴.

### Section 6. 불안장애 분야

정신병리 및 임상특성 9, 역학 1, 유전 1, 평가도구 4, 증례 2

(1) 심사현황 : 게재 12, 게재거부 4, 투고철회 1

(2) 1차 심사결과 : 무수정 0, 조건부 13, 재투고 4

**문제점 및 제안** – 논문 심사위원의 확충과 논문 심사위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

### Section 7. 정신신체의학 분야

정신병리 및 임상특성 2, 유전 1, 평가도구 1, 증례 1

(1) 심사현황 : 게재 3, 게재거부 2, 심사 중 1

(2) 1차 심사결과 : 무수정 1, 조건부 2, 재투고 2

**문제점 및 제안** – 논문 심사위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됨.

### Section 8. 수면의학 분야

정신병리 및 임상특성 2, 뇌파 1, 신경심리 2

(1) 심사현황 : 계재 2, 심사 중 3

(2) 1차 심사결과 : 조건부 2

**문제점 및 제안** – 논문의 저자에게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노출되었던 경우가 있었음. 심사위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Section 9. 사회정신의학 분야

### 사회정신의학 분야 1

사회현상관련 9, 제도관련 4, 평가도구 2, 자문조정 1

(1) 심사현황 : 계재 12, 계재거부 1, 투고철회 3

(2) 1차 심사결과 : 무수정 11, 조건부 4, 재투고 1

### 사회정신의학 분야 2

사회현상관련 3, 제도관련 2, 평가도구 1

(1) 심사현황 : 계재 2, 계재거부 2, 심사 중 3

(2) 1차 심사결과 : 조건부 2, 재투고 1, 계재거부 1

**문제점 및 제안** – 심사위원이 심사 의뢰된 논문이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음. 서론과 결론 부분 상당히 일치함. 표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 지난 2년간 학회지 발전을 위한 간행위원회의 및 워크숍

### 제1차 영문학회지 편집회의

일 시 : 2006년 12월 29일(금)

장 소 : 서울팔래스호텔 일식당 ‘다봉’

참석자 : 김찬형, 권준수, 김세주, 김용구, 김율리, 이현정, 천근아

### 회의안건

- 영문학회지 4권 1호 현황

- 출판사 교체

- 해외 저명 저자 섭외

-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medline 등재 준비

- Supplement(WPA 특집)

### 회의내용

- 영문학회지 4권 1호 현황 : 현재 원저 4편, 중례 1편 접수됨.

- 출판사 교체 : CFcom은 academic journal에 대한 경험에 부족하여 중앙문화사로 교체키로 함.

### •해외 저명 저자 섭외방안

- 국내 초청 해외 저자에게 미리 초청 원고 청탁

- WPA Regional Meeting 시에 영문학회지 배포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준비 : 2007년 5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를 위한 재반사항 준비를 금번 회기 발간 후부터 시작(이현정 교수님)

- Medline 및 Pubmed 등 Index medicus 등재 준비

- Supplement : WPA Regional Meeting 후 abstract 모음집을 본 학회지의 supplement로 발간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함(권준수 교수님).

### 제2차 영문학회지 편집회의

일 시 : 2007년 2월 21일(수)

장 소 : 서울팔래스호텔 일식당 ‘다봉’

참석자 : 김찬형, 김용구, 김세주, 김정진, 김율리, 이현정, 중앙문화사(김인수 사장)

### 회의안건

- 영문학회지 4권 1호 정시 발간

- 영문학회지 4권 1호 점검

- 투고 규정 점검

- 영문학회지 4권 2호 특집

- WPA 특집을 supplement로 출간예정

### 회의내용

- 4권 1호를 2007년 2월 28일 발간시기 ±10일로 발간한다.

- 4권 1호의 체제를 정비하고 목차를 정한다.

- Instruction for authors를 보완한다.

- 4권 2호 특집의 주제는 Genetic study in psychiatry로 한다.

- 4월의 WPA Regional Meeting의 abstract를 supplements로 발간한다.

### 제1차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회의

일 시 : 2007년 6월 12일(화)

장 소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무실

참석자 : 김찬형, 이현정, 김율리, 천근아, 김정진

### 회의내용

- 2007년도 신청부터 편집위원회에 대한 항목이 세부적으로 나뉘고 강화되었음.

1. 편집위원의 증복성(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타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많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 감점)
2. 편집위원의 연구실적(연구실적을 별도의 양식에 표기하여 제출)
- 학술지 내용 평가 항목이 점수가 강화되면서 세부화됨
  1. 학술지 내용 평가 항목일 때는 배점이 28점이었는데, 패널위원 평가와 주제전문가 평가로 나누어지고 배점이 합해서 70점으로 상향조정됨.
- 학회규정 항목이 편집위원회 규정, 심사 규정, 투고 규정, 발행 규정, 연구윤리 규정, 기타 규정 등으로 구체적이고 세부화됨.
  1. 각각의 규정을 좀 더 세분화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윤리 규정의 제정이 필요함.
- 논문투고자의 분포도 : 해외 저자의 논문 투고를 늘릴 필요가 있음.

## 제2차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의의

일 시 : 2007년 6월 20일(수)  
 장 소 : 서울팔래스호텔 일식당 ‘다봉’  
 참석자 : 김찬형, 김용구, 이현정, 김율리, 김정진

### 회의내용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서류 제출 전 최종 점검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8월 말까지 편집위원 연구실적 내용을 더 보강해서 한번 더 제출하기로 함.

## 제3차 영문학회지 편집회의

일 시 : 2007년 8월 31일(금)  
 장 소 : 서울팔래스호텔 일식당 ‘다봉’  
 참석자 : 김찬형, 김용구, 김정진, 김세주, 이현정, 김율리

### 회의내용

- 4권 2호(2007년 9월호) 진행상황 점검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신청 완료 및 후속 작업 점검
-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방안
- 영문학회지 발전방안 도모

## 간행위원회 논문심사 워크숍

일 시 : 2007년 9월 5일(수)  
 장 소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무실  
 참석자 : 김찬형, 김세주, 김재진, 오강섭, 송동호, 박용천, 홍진표, 김도관, 구영진, 차경렬, 신윤경

### 프로그램

사 회 : 김세주 간사

- 논문심사(Peer Review)의 개요 ----- 김찬형(간행위원장)
- 2년간 논문심사 경과 보고 ----- 김세주(간사)
- 논문심사의 문제점 ----- 세부편집장
- 논문심사체계의 개선 방향(자유토론) ----- 전체

### 논문심사의 개선방향

- 심사위원 pool의 확대 추진(세부편집장별 20인씩 추천하면 위촉장을 보내 심사위원으로 등록하는 것을 독려, 세부 전문 심사위원 위촉 필요)
- 주요 심사위원에 대한 모니터링 장치 필요함(세부편집장의 관리 필요).
- 불가판정의 불일치인 경우의 세부규정 필요함.
- Single Case는 크게 완성도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reject 처리하는 것이 좋겠음.
- 온라인 시스템에서 심사기간이 일정시간 지나면 독촉 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되거나 심사위원이 수락/비수락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현, 심사위원 선정 시 등록되어 있는 심사위원이 작성한 논문을 보이게 하여 심사위원 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의 온라인 시스템 수정, 보완이 필요함.

## 고찰 및 결론

이상과 같이 지난 2년간의 학회지 투고 및 심사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지난 2년은 학회지 ‘신경정신의학’의 투고 및 심사에 있어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모든 투고와 심사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시스템이 2005년 6월부터 도입이 되어 현재는 단 한 편의 예외도 없이 모두 온라인으로만 투고와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에 우편으로 투고 및 심사 과정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우편발송에 해당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투고 및 심사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어 저자나 심사위원들에게 원고 및 심사평을 전달하는 데에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또한 투고 및 심사의 전 과정을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함으로써 향후 각종 통계와 현황을 분석하는 데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시행 초기 시스템의 오류가 존재하였고 또한 새로운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했기에 적지 않은 수고가 필요하였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초기 일부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현재 온라인 시스템은 비교적 안정화되어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학회지 ‘신경정신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도 현실이다. 첫째, 온라인 시스템이 개발되어 우편 발송 및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투고에서 심사까지의 기간이 전혀 단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된 이후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진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런 문제는 논문심사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주의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 이런 문제의 보완을 위해 주기적으로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심사 마감 시한을 자동적으로 알려 주는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논문심사 기간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논문심사위원의 pool의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투고되는 논문이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전문화된 심사위원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직접 심사위원으로 온라인상에 등록을 해야만 심사위원 목록에 등재가 되고 세부편집자들이 심사의뢰를 할 수 있는 체계

로 되어 있다. 따라서 훌륭한 논문심사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 등록되지 않아 심사의뢰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 전문학회의 도움을 받아 심사위원 pool을 대폭 수정 및 보완할 예정이다. 셋째, 시스템의 발전과 더불어 학회지 ‘신경정신의학’ 발전을 위한 모든 회원들의 자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연구 업적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국제적인 잡지에 연구의 결과를 게재하는 것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어느덧 회원들 마음 속에 ‘신경정신의학’에 게재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신경정신의학’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회원 모두가 ‘신경정신의학’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 관심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 또한 최근 중복게재, 이중게재 등 논문 작성 및 투고에 있어 윤리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논문 작성 및 투고의 문제를 심사위원의 힘만으로 걸러내거나 지적해 낼 수 없다. 회원 모두가 윤리적인 문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까지는 중복게재, 이중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저자들에게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앞으로는 좀 더 공식적인 제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